

‘응답하라 2002’...박지성·이영표·홍명보 등 K리그 합류

4강 신화 이룬 주역들 프로축구 K리그 입성

박지성, K리그1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위촉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주역들이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 입성하며 새 시즌 축구 팬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은퇴 후 축구 행정가로 변신한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이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손을 잡았다. 전북 구단은 19일 “박지성을 구단에 조연자 역할을 할 ‘어드바이저’(이하 위원)로 위촉했다”라고 발표했다. 박 위원은 전북에서 프로와 유소년 선수 선발과 육성 및 스카우트, 훈련 시스템 제시 등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맡는다.

상근직은 아니지만,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상근 어드바이저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 선수 이적과 영입 등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도 겸한다.

명지대 졸업 후 K리그가 아닌 일본 J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박지성은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뒤 PSV아인트호벤(네덜란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등에서 10여 년간 유럽 무대를 누비며 선진 구단 운영 시스템을 경험했다.

2014년 현역 은퇴 후에는 2016~2017년 영국 레스터의 드로포르 대학교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마스터 코스 과정을 밟으며 행정가 변신을 예고했고, 2017년 11월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축구를 총괄하는 유소년본부장으로 첫 행정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당시 영국 거주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 1년 만에 사임했다. 이 박지성이 K리그에 직접 발을 내디딘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 시절에도 국가대표와 명지대를 제외하곤 해외에서만 활동했다. 선수는 아니지만 행정가로서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전북도 한국 축구 전설인 박지성의 합류로 사무국 경쟁력까지 세계적인



박지성



이영표



홍명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K리그는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목표인 전북엔 박지성의 가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지성에 앞서 한일월드컵 당시 ‘초롱이’로 축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영표도 지난 4일 강원FC 대표이사로 행정가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원도 흥천 출신이다.

네덜란드, 잉글랜드, 독일, 미국 등 다양한 해외 무대를 경험한 이영표 신임 대표는 “강원을 명문 구단으로 만들겠다”며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강원도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이사 선임 후 강원은 바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마사, 윤석영, 김동현에 최근에는 울산 현대를 제치고 올림피아 대표 공격수 김대원까지 영입했다.

2002 한일월드컵 ‘주장’ 홍명보 감독은 울산 지휘봉을 잡고 3년 만에 현장에서 복귀했다. 홍 감독은 1990년 국제축구연맹(FIFA) 이탈리아월드컵부터 2020년 한일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밟았으며, 한일월드컵에선 히딩크호의 주장으로 한국의 사상 첫 승과 함께 4강 신화를 이뤘다.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136회) 기록도 갖고 있다.

현역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홍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 축구 역대 첫 올림픽 메달(동메달)을 목에 걸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올림픽 성공으로 2013년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 나섰지만,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월드컵 실패 후 한국을 떠난 홍 감독은 중국 무대에 진출했다가 2017년 11월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았다.

행정가로서 꾸준한 현장을 다닌 홍 감독은 지도자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K리그에 대한 도전 의식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고, 고심 끝에 울산의

사령탑을 맡았다.

홍 감독의 합류로 이번 시즌 K리그 1에선 지난 시즌 성남FC의 극적 잔류를 이끈 김남일 감독과 함께 2명의 2002 월드컵 멤버가 지역 대결을 펼치게 됐다.

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골문을 지켰던 이운재는 전북 현대 골키퍼 코치로 신임 김상식 감독을 보좌한다.

K리그2에서도 2002 월드컵 영웅들이 승격 전쟁을 벌인다. 지난해 아쉽게 승격을 놓친 경남FC 설기현 감독과 올림픽 대표팀 코치에서 대전하나 시즌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민성 감독이 격돌한다.

김민희기자

KIA 챔피언스필드 문전성사...윌리엄스식 처방 성공?

타격 등 기술훈련 대신 개인별 맞춤형 트레이닝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은 작년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파격적인 훈련을 했다. 기본적으로 실시하던 타격, 투구, 수비, 주루 등 기술훈련을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선수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안겼다. 마무리 캠프 기간은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훈련이었다.

선수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조지였다. 메이저리그식 훈련법이었다. 풀타임 체력이 부실한 선수들이 많았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과 부상 선수들이 많았다. 기술보다는 체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행

에 옮겼다. 기술 훈련은 스프링캠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즌 오프와 함께 두 달째 시간이 흐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입국해 현재 자가격리중이다. 선수들이 자가 훈련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만족해하고 있다. 마크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트레이너 코치들과 함께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확인한 결과였다.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선수들이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챔피언스필드 트레이닝 룸은 문전

성사이다. 매일 시간을 정해 20~30명이 나와 자율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개별적으로 제우도를 찾아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고, 주변의 훈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고졸 2년 차를 맞는 투수 정해영도 매일 광주 시내의 훈련클럽을 찾아 몸을 만들고 있다. 아버지 정회열 전 수석코치는 “해영이가 쉬지 않고 운동 잘하고 있다. 몸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해영이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자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선수들 사이에 오프 시즌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당장 스프링캠프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동료 선수들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은 연봉으로 보상 받는다는 점도 요인이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훈련은 효과가 훨씬 높다. 따라서 2월 1일 시작하는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들의 어떤 몸으로 나타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수들이 속제를 잘 짚는 스프링캠프 훈련 과정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고 체력을 주문했던 윌리엄스식 처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선욱기자

‘파워랭킹 3위’ 임성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도전



남자 골프 세계랭킹 18위 임성재(23)가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오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라킨타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출전한다. PGA는 지난주 소니오픈부터 임성

재를 우승 후보로 예상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앞두고는 임성재를 파워랭킹 3위로 예측했다.

임성재는 지난 11일 막을 내린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에 올랐지만 소니오픈에서는 공동 56위에 머물렀다.

새해 첫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임성재는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한다.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에서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거머쥔 임성재는 이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임성재와 함께 신예 김주형(19)과 안병훈(30), 강성훈(34), 김시우(26), 이경훈(30), 노승열(30)도 대회에 출전한다.

김주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스폰서 조정 선수 자격으로 경쟁한 선수들과 자웅을 겨룬다. 뉴스

소니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쥔 재미교포 케빈 나는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세계랭킹 20위 선수들 중 6명의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세계랭킹 2위 은 람(스페인), 10위 패트릭 캔틀레이, 11위 패트릭 리드, 12위 브룩스 캠퍼(이상 미국)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두 번의 우승을 거둔 필 미켈슨(미국)이 대회 호스트로 참가한다.

지난해 50세가 된 미켈슨은 PGA 투어 통산 45번째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대회는 156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와 닉 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에서 열린다. 36홀 컷 통과 이후 마지막 3, 4라운드는 스타디움 코스에서만 벌어진다. 뉴스

새 출발하는 김하성 “히어로즈 팬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팬들이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새로운 출발선에 선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팬들에게 인사를 남겼다.

김하성은 19일 키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을 약속했다.

김하성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게 됐는데, 좋은 팀을 만나 좋은 계약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2014년 넥센(현 키움) 2차 3라운드

29순위로 프로에 데뷔한 김하성은 지난해까지 줄곧 히어로즈에서 뛰었다.

입단 2년 차인 2015년부터 주전 유격수를 차지하며 팀의 간판 선수로 성장, 7시즌 동안 통산 891경기에서 타율 0.294, 133홈런 575타점 606득점 134도루의 성적을 남겼다.

2020시즌이 끝난 뒤에는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다. 공수주를 두루 갖춘 김하성은 빅리그에 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이제는 그동안 함께했던 히어로즈를 떠나 새출발을 준비한다.

김하성은 “팬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벌써 그림자”며 애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팬분들 덕분에 히어로즈에 있

으면서 7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메이저리그에서 경기할 때도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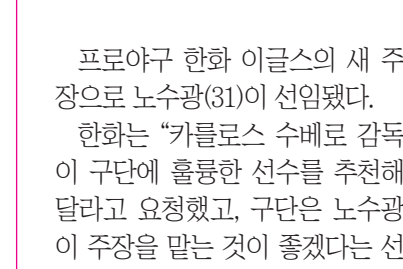
코리안 메이저리거로서의 활약도 약속했다.

김하성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좋은 플레이로 팬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히어로즈 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다짐하며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한편, 미국에서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친 뒤 한국에 돌아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하성은 지난 16일 격리 해제됐다. 그는 미국 출국 전까지 키움과 함께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하며 몸을 만들 예정이었다. 서선욱기자

한화 이글스 새 주장 노수광

“감독·선수 소통 노력할 것”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주장으로 노수광(31)이 선임됐다.

한화는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이 구단에 훌륭한 선수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단은 노수광이 주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선수들의 의견을 취합해 감독에 추천했다. 이에 수베로 감독은 19일 흔쾌히 받아들여 선임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수광은 “마무리 캠프에서 주장을 맡았었는데 올해 주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 올 시즌 감독님과 선수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정기자



이근호, 13년만에 친정팀 대구 복귀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36)가 13년 만에 친정팀 프로축구 K리그1 대구 FC로 복귀한다.

대구 구단은 19일 이근호를 1년 임대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데뷔한 이근호는 2007년 대구로 이적해 2시즌 동안 59경기 23골 9도움으로 ‘대구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대구에서 2년 연속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됐고,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는 등 전성기를 보냈다.

당시 대구 팬들은 이근호에게 대구 엠블럼 속 태양에 착안한 ‘태양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2009년 일본 J리그로 진출한 이근호는 주빌로 이와타, 감바 오사카를 거쳐 2012년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K리그로 돌아왔다. 이근호는 울산에서 지난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일조했다. 이근호는 K리그 통산 297경기에서 73골 52도움을 기록 중이다. 김민희기자